

제 목	국 문	직업별 상지 근골격계 증상 호소율과 특성		
	영 문	Characteristics and Prevalence of Upper Limb Musculoskeletal Symptoms according to Job Type		
저 자 및 소 속	국 문	김수근, 송재철, 박항배 한양의대 예방의학교실		
	영 문	Soo Keun Kim, Jaecheol Song, Hung-bae Park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분 야	환경	발 표 자	김수근(전공의)	
발표 형식	포스터	발표 시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96년 10월			
<p>1. 연구목적</p> <p>최근 상지의 근골격계질환(경견완장애)이 업무상질환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주로 컴퓨터 단말기작업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을 뿐 일반 제조업을 대상으로한 관심과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저자들은 자동차 정비작업자(남자), 자동차 부품조립작업자(남자), 간호사(여자)를 대상으로 상지 근골격계의 증상 호소율과 특성에 관하여 조사하여 제조업에서의 상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예방대책과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 하였다.</p> <p>2. 연구방법</p> <p>조사방법은 1개 자동차 정비공장과 1개 자동차 부품제조공장에서 근무하는 남자 생산직 근로자와 1개 병원에 근무하는 여자 간호사 각각 113명, 111명, 295명을 대상으로 목, 어깨, 팔, 팔꿈치와 손목과 손에서 느끼는 자각증상 유무와, 증상을 느끼는 빈도와 강도 그리고 자가증상의 지속기간을 조사하였고, 이로 인한 결근과 작업전환 유무 및 치료유무를 조사하였다.</p> <p>3. 연구결과</p> <p>자료의 분석은 직업별 증상호소율과 특성을 비교하고 각 개인의 일반적 특성(연령, 근무기간, 교육정도, 결혼상태, 여가시간 육체활동 정도)과의 관계를 조사하여 다음 결과를 얻었다.</p> <p>1. 직업별 조(crude)증상 호소율은 신체부위별로 목은 자동차부품 조립작업자는 어깨 67.3%, 손목과 손 51.3%, 목 49.6%, 팔꿈치 31.9%, 팔 29.2% 순이었고, 자동차 정비작업자는 목 45.0%, 어깨 36.0%, 손목과 손 27.0%, 팔꿈치 20.7%, 팔 18.9% 순이었고, 간호사는 목 18.6%, 어깨 21.7%, 손목과 손13.2%, 팔 6.4%, 팔꿈치 3.7% 순이었다(표 1).</p> <p>목과 상지 모든 부위에서 자동차부품 조립작업자, 자동차 정비작업자, 간호사 순이었다.</p>				

Table 1. Prevalence of Neck and Upper Limb Musculoskeletal Symptoms

	%		
	Assembly Worker	Repairer Worker	Nurse
Neck	49.6	45.0	18.6
Shoulder	67.3	36.0	21.7
Arm	29.2	18.9	6.4
Elbow	31.9	20.7	3.7
Wrist and Hand	51.3	27.0	13.2
Total No.	113	111	295

2. 작업자의 연령, 근무기간, 교육정도, 결혼 유무, 여가시간 활동정도정도에 따른 증상호소율의 차이를 카이자승 검정을 실시하여 본 결과 자동차부품 조립작업자의 경우는 근무기간이 12개월 미만과 10년 이상인 경우에서 호소율이 유의하게 높았고, 자동차 정비작업자는 작업자의 특성에 따른 증상 호소율의 차이가 없었으며 간호사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팔꿈치와 손과 손목의 증상호소율이 유의하게 높았고, 여가활동의 정도가 많을수록 목의 증상호소가, 결혼을 한 경우에는 손과 손목의 증상호소율이 높았다.

4. 고찰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조립작업과 같이 작업형태가 고정된 위치에서 일정한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자에게 목과 상지의 근골격계질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결근과 부서전환등으로 생산손실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 제조업에서 지속적으로 단순 반복 작업이 이루어 지는 사업장에 대한 목과 상지에 대한 예방대책과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